

(속보) TPP교섭 대체적인 합의 도달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상 참가 12개국은 5일 오전,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국 장관 회의에서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최대의 현안사항이었던 주요 품목의 쌀에 대해 미국과 호주에 총 7만 8400톤의 수입 범위를 신설하고, 다른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농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대략적인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주내에 “TPP 종합 대책 본부 (가칭)”을 설립하여, 타격을 받는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 검토를 서두를 예정이다.

당초 일본정부는 쌀등 주요 농축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시장을 사수하겠다고 선언한바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타결되고 있어 향후 국내 농업계 및 국회에서의 논란이 예상되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주목되고 있다.

〈 주요 품목의 합의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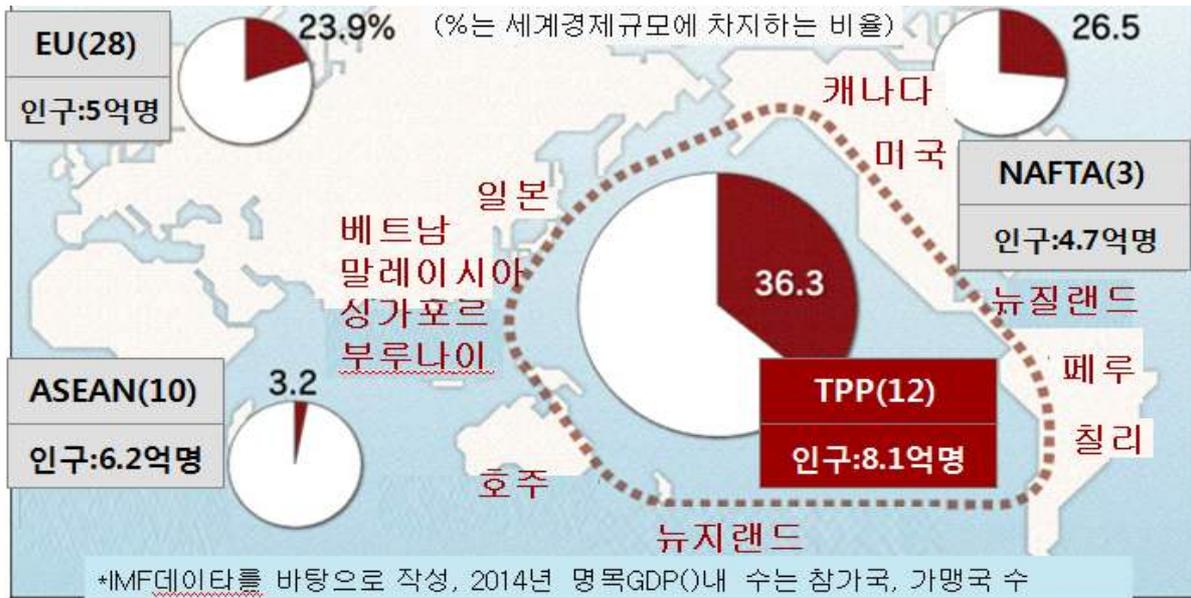
품목	합 의 내 용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수입 범위(SBS방식)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70,000톤, 호주 : 8,400톤 * 당초는 미국50,000톤, 호주 6,000톤 범위, 13년째 이후 각 70,000톤, 8,400톤으로 확대 * SBS방식 : 수입의무가 없는 매매동시입찰 ◦ 기존 MA(최저수입물량)내에 사실상의 미국산 쌀 우대책 ◦ 쌀 조정품이나 가공품으로 관세 삭감 · 철폐

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의 관세인 마크업을 9년째까지 45% 삭감 ◦ 특별 수입 범위(SBS방식)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맥 : 25.3만톤, 대맥 : 6.5만톤 ◦ 밀가루 조제품은 6만톤의 수입 범위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카로니, 스파게티 관세도 60% 삭감 ◦ 맥아는 현재 무관세 수입 범위 내에 미국, 호주, 캐나다를 대상으로 국가별 수입범위를 신설
소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관세 38.5 % → 16년째 이후에 9%까지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73.8만톤으로 발동 - 관세 9%의 경우 발동하더라도 18%까지 밖에 돌아오지 않음 - 16년째 이후 4 년간 발동되지 않으면 폐지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관세제도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점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격대의 종량세 : 482엔/kg → 10년째에 50엔으로 인하 - 고가격대의 종량세 : 4.3% → 10년째에 0%로 ◦ 세이프가드는 12년째에 폐지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방우유와 버터의 저관세수입범위를 뉴질랜드, 미국, 호주에 신설 ◦ 일부 치즈 (체다, 고다 등)과 유청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 ◦ 프로세스 치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각 150 톤의 수입 범위를 신설
감미자원 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당가조정제도를 유지하지만, 고당도의 정제용 원료당에 관세 철폐 및 조정금의 감소를 인정 ◦ 가당 조제품 (초콜릿 과자 등)에 총 9.6만톤의 저관세 수입 범위를 마련 ◦ 전분은 기존의 저관세수입물량 (16.7만톤)의 범위 내에서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수입물량 (7500톤)을 마련



TPP 공동 기자회견 모습
(5일, 미국 애틀랜타)

< 세계최대의 자유 무역권 >



(출처: 일본경제신문, 일본농업신문 등)